

지시대 흰 화순풍력발전기, 강화된 제품 검사 못받아

‘제품 출하 전 검사’ 시행 3년 전 착공 영향… 타워 자재 성적·용접부 강도도 평가 못받아

꺾임 사고가 발생한 화순 풍력발전기가 강화된 안전법 적용을 피한 탓에 출하 전 당국의 제품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남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서 꺾임 사고가 발생한 풍력발전기는 시공 전 당국의 제품 검사를 받지 않았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안전 기준 등이 강화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12월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다. 2023년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안정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된 법은 전기안전공사가 제품 결함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에서 출하하기 전 블레이드·나셀·타워 주요 부품에 대해 성능시험과 열간화도 시험 등 35가지 항목에 따라 검사하는 과정이다. 풍차의 지지대인 타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재 성적·용접부 강도 계산·볼트 성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하지만 철강 타워가 구부러진 화순 풍력발전기는 법 개정 전 인가를 받아 해당 점검 절차를 받지 못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구조물 결함이 지목됐다는 점에서



23일 오후 전남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향산 정상부에 지어진 127m길이의 4.7MW급 풍력발전기가 꺾여있다. 지난 21일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에 세워진 풍력발전기 11기 중 11번째 발전기가 쓰러진 것과 관련해 사고의 시공·제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사전 제품 성능 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완공 이후에도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점검 시기도 도래하지 않아 단 한 차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발전기는 2023년 6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여야 첫 정기 점검을 받는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 시기도 4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고, 공장 출하 전 풍력기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법은 강화됐지만 사고 기제는 이미 공사 허가를 받아 시

기적으로 강화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2시50분께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의 타워가 엇가락처럼 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필리핀 현지에서 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유명 선수 출신 임창용(49)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필리핀서 도박 빚 안 갚은 ‘KBO 레전드’ 임창용, 징역8개월 법정구속은 안 해… 임씨 측 “항소하겠다”

검사는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들 뒤엔 갚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A씨에게 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돈도 이미 다 갚았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챘 사실이 인정돼 유죄다. 이 중 8000만원은 피해 회복이 안 됐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7000만원은 변제한 점, A씨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임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현지 화폐 페소

경찰이 잠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수소문해 2억여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에 나서 2억1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지역민 A씨의 휴대전화기에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악성 앱이 설치돼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잠적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소문해 2억원 지킨 경찰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이후 A씨와 가족 사이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잠적한 A씨는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

다’고 가족에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출과 예금, 주식 등 2억1700만원을 현금화한 뒤 송금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따르고 있는 지시에 대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알리고 관

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현금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씨 역시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에도 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민규 기자

할서 신고 등 조치에 나섰다.

서울지역 경찰의 협조로 악성앱 삭제와 사후조치가 이뤄졌으며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은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 우치동물원 “아기 물범 이름 지어주세요”

5월4일까지 접수… 어린이날 연휴 현장투표로 최종 선정

사육사 손에 자란 잔점박이물범 암컷… 합사적응훈련 중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물범 이름 공모전을 오는 5월4일까지 진행한다.

아기 물범은 잔점박이물범 암컷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육사의 손에 자랐다. 사육사가 직접 이유식을 먹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며 성장했고, 지금은 어미와 함께 살기 위해 합사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접수된 이름 가운데 3개 후보를 우선 선정한 뒤 5월 5일과 6일 연휴 기간에 우치동물원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름을 아기물범의 공식 이름으로 7일 확정·발표한다.

공모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이름 후보로 선정된 3인에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홍보물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치공원 동물원

아기물범이름공모전

우리 동물원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 물범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 기간 4월 23일(수) ~ 5월 4일(일)

선정된 이름은 아기 물범의 공식 이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 참가자는 선정의 사용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미본의 이름만 아이디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검은 상자에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바로가기

★ 당첨 상품: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홍보물(선정된 3인)

★ 당첨자 발표: 5월 6일(화)

★ 이름 최종 발표: 5월 7일(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장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아기 물범은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인기 동물”이라며 “이름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동물 간 교감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소방 “소방본부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

소방기관, 일반 민간업체 물품 대리구매·문자구매 지시 안 해
사칭사기 유사사례 확인엔 즉시 경찰서·소방본부로 신고 당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부서를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울산의 한 철물점에서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기업체가 사다리 구매를 요청,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 구매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공문서인 것처럼 위장한 ‘물품지급 결제 확인서’를 문자로 보내며 카드결제를 미끼로 대리 구매를 유도했다. 다행히 철물점 관계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3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광주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한 사기업체가 소방훈련 관련 장비를 사전에 주문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응급의료키트 대리 구매도 요청했다.

해당 업체가 요구받은 주문은 장어 20kg 물량으로 약 1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관계자가 북부소방서 건국119안전센터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와 유사한 사기 행위가 지역 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당부했다.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 사례가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경찰서 또는 소방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통일화물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통일화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